■□□□□□□□□
일반논문 「지역발전연구」 제22권 제1호 : 1～35 JRSD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기영화
숭실대학교

김윤지
서울대학교

김남숙
숭실대학교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표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 대상은 OECD, UN, UNESCO, EU, WHO 등 국제기구의 관련 지표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관련 지표를 포함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들 지표는 각국 또는 해당 국제기구의 사용목적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국제기구나 다른 상황에 있는 국가 간의 일반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이입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전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표의 관련성과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척도로 구성된 매트릭스 평가틀을 사용해 최종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주제어: 커뮤니티웰빙 지표, 커뮤니티웰빙, 지방정부, 삶의 질]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59)

www.kci.go.kr

Ⅰ. 서론

GDP는 한 사회의 발전 상태를 나타내거나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통용되어왔다. 이는 경제적 상태 또는 번영이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광을 받은 신자유주의 및 자본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GDP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GDP 회의론이 최근 5년 사이에 등장한 것은 아니며 이미 1970년대부터 페미니즘, 개발도상국가 연구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GDP를 넘어서(Beyond GDP)’에 대한 요구가 존재해왔다(Smith & Hoekstra, 2011). 경제지표가 삶의 질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공동체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행복감(happiness), 웰빙(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건강도시(health commun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북미를 중심으로 사회지표개발 운동이 전개되었다(Ilić, Milić, & Aranđelović, 2010).

우리나라는 GDP 2만불의 성장 속에 있으나 실제 국민생활을 들여다보면 소외, 차별,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각종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문제들은 묻지마 칼부림, 해고노동자의 자살과 같은 사건·사고를 통해 사회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로서 정부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행복, 복지, 삶의 질과 같은 개념들이 정책의 중심 가치로 등장하였고 그 요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형성 장려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의 행복이나 웰빙 증진을 목표로 하면서 지역사회 또는 커뮤니티 형성을 장려하는 정책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웰빙을 염두에 두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추진되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 즉 이들에 대한 평가는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커뮤니티웰빙 지표는 단순한 평가 요인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표

www.kci.go.kr

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줄 뿐 만 아니라 가치와 목표를 의미하여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나아가 커뮤니티웰빙 지표는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지역시민과 관계를 맺는 데 구체적인 초점을 두고 있기에 지역사회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 지역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핵심 동향, 우선사항,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다. 또한 지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돕기에 커뮤니티웰빙 지표는 지역사회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웰빙 지표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결과(outcome)와 실질적인 성과(result)로 관심을 전환시키고 더 나은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웰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미흡하다. 다만 국민 개인 차원의 행복이나 삶의 질 또는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정책이 개인이 아닌 집합 단위를 대상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커뮤니티웰빙 평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개발하고자 국제기구와 외국의 유관지표들을 비교분석한다.

어떤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 개념의 정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II장에서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과 분석틀을 소개하고, IV장에서는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에 대한 노력이 주로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기에 이런 해외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나아가 해외사례의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를 제시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www.kci.go.kr

Ⅱ. 커뮤니티웰빙 선행연구

커뮤니티웰빙은 학술연구, 정책,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웰빙, 삶의 질, 행복감, 지속가능성 등의 다양한 개념들과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개념도 함께 논하고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서 특히 커뮤니티웰빙 개념의 분석 단위, 접근법, 그리고 영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커뮤니티웰빙의 정의 및 접근법

커뮤니티웰빙은 다양한 개념과 혼용되고 있으며 특히 웰빙이라는 단어와 자주 혼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웰빙 보다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더 흔하게 사용되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웰빙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가령 웰빙 연구들이 자주 언급하는 Plato나 Aristotle도 개인을 그 분석단위로 한다.[1] 최근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연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분석단위에 있어서 다소 혼란이 존재한다. 즉, 커뮤니티 웰빙을 집단 수준으로 한정시켜서 웰빙 또는 개인 웰빙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거나, 두 개념이 구분은 가능하되 단계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거나, 이 중 한 개 개념이 다른 개념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연구들이 있다.

Rath & Harter(2010)는 웰빙의 다섯 가지 요소(element)를 직업 웰빙, 사회적 웰빙, 경제적 웰빙, 신체적 웰빙, 그리고 커뮤니티웰빙으로 꼽으면서 커뮤니티 웰빙을 개인 웰빙의 요수 중 한 개로 다룬다. 특히 커뮤니티웰빙을 개인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얼마만큼 소속감을 느끼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로 정의하면서 개인 수준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반면, Wiseman & Brasher(2008)는 커뮤니티웰빙을 개인과 커뮤니티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의하면서 커뮤니티웰빙을 집합적 수준에서 분석하되 커뮤니티웰빙이 개인 수준의 웰빙까지도 포함한다고 본다. AECOM Canada

1) Plato는 hedonic 웰빙의 대표적 학자로서 웰빙이란 한 개인이 부정적 감정 보다는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는 상태로 정의한다. 반면, Aristotle은 eudaemonic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웰빙이란 단순한 감정의 유무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번영하는(flourishing) 삶"으로 정의한다.

www.kci.go.kr

Ltd.(2009)와 Gartner Lee Ltd.(2007)도 유사하게 커뮤니티웰빙을 집합적 수준의 개념으로 보고 특히 이들은 커뮤니티웰빙의 정의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커뮤니티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White(2008)도 커뮤니티웰빙을 집합적 수준의 개념으로 분석하지만 이것은 개인 웰빙을 합해서 가구 웰빙으로, 다시 가구 웰빙을 합해서 동네 웰빙, 그리고 커뮤니티 웰빙으로 구성한다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커뮤니티웰빙의 정의 및 접근법은 이 개념을 어떤 상태 또는 결과로 보는 시각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Wiseman & Brasher(2008)은 커뮤니티 웰빙을 개인과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조건(essential conditions)으로 보고 Gartner Lee Ltd.(2007)도 유사하게 커뮤니티 웰빙을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접근한다. 반면, Rath & Harter (2010)와 AECOM Canada Ltd.(2009)는 커뮤니티웰빙을 번영하는 삶의 상태 또는 커뮤니티 내의 높은 만족도 상태로 접근한다. White(2008)는 이 두 가지 접근과 달리 커뮤니티웰빙을 과정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웰빙을 직관적으로 좋은 것, 좋은 상태(“doing well, feeling good; doing good, feeling well")로 정의하고 웰빙에서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에 실제 웰빙을 커뮤니티 수준에서 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웰빙의 의미 자체가 시대에 따라, 심지어 한 개인 내에서도 생활 주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웰빙을 동태적 과정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White(2008)가 지적하였듯이 관계는 웰빙 연구에서 빠짐없이 강조된다. 커뮤니티웰빙을 개인 웰빙의 한 요소로 보는 Rath & Harter(2010)도 결국 개인이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그 구성원들과 가지는 관계에 따라 개인 웰빙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AECOM Canada Ltd.(2009), Gartner Lee Ltd.(2007), Wiseman & Brasher(2008)도 각각 대여섯 개의 커뮤니티웰빙 요소 또는 영역에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는 잘 알려진 Putnam et al.(1994)의 연구 중 사회 자본이 성공적 민주주의에 필요한 주요요소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더 작은 단위인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의 웰빙에 있어서도 사회 자본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미시적 수준의 개인 웰빙, 커뮤니티 웰빙을 거시적 수준의 국가 발전과도 연결시켜

www.kci.go.kr

주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웰빙의 요소들 또는 영역들 간의 관계도 강조하고 있다. 가령 Wiseman & Brasher(2008)은 커뮤니티웰빙의 정의 자체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정치적 조건들의 합(combination)이라고 말하고 Rath & Harter(2010) 역시 웰빙이란 직업, 사회적 관계, 경제, 건강, 커뮤니티에서의 삶 등 여러 요소의 합(combination)이라고 말하며 특히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interact)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White(2008)는 커뮤니티웰빙의 요소를 주관적, 물질적, 관계적 요소로 다르게 정의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들 간의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요소들을 삼각형으로 도식화했다.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을 논하기에 앞서 그 개념과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은 커뮤니티웰빙을 조건, 상태, 또는 과정으로 보고 주로 대여섯 개의 요소나 영역으로 커뮤니티웰빙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커뮤니티웰빙 요소 중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자본을 중요시하기에 커뮤니티웰빙의 분석수준에 있어서 개인 보다는 집합적 수준의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소결하면, 커뮤니티 혹은 웰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측정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들도 있다(AECOM Canada Ltd., 2009; Cox et al., 2010; Gartner Lee Ltd. 2007).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이 개념을 정립하게 되면, 고유의 목표를 세우고, 웰빙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기대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커뮤니티'의 의미가 뚜렷하다는 암묵적 전제를 바탕으로 웰빙이 무엇인지, 웰빙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2]를 내포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연구들은 각자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커뮤니티웰빙을 논하고 있고 그렇기에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이 개념을 접근할 것이

2) 가령 Hillery(1955)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가 약 94개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www.kci.go.kr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를 지방행정구역으로 정의하고 커뮤니티 웰빙을 어떤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상태의 합으로 정의한다.

2. 커뮤니티웰빙 지표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여기서도 정의 및 접근법에 관한 선행연구처럼 커뮤니티웰빙의 유관개념의 측정을 다룬 연구들로 포함한다.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는 연구와 현존하는 지표를 소개하거나 분석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지표체계만 제시하는 연구, 더 나아가 직접 개발한 지표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 그리고 지표의 적용과 함께 그 지표체계의 타당성까지도 평가하는 연구가 있다.

White(2008)와 Gartner Lee Ltd.(2007) 연구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White(2008)는 개인 수준의 웰빙 지표와 커뮤니티 수준의 웰빙(wellbeing at community level)지표요인을 제시하는데 둘 다 주관적, 물질적, 관계적 요소라는 삼각형 틀을 기본으로 한다. 지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주관적, 물질적, 관계적 요소라는 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충분히 하고 있는 반면 지표의 예시들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바탕으로 추출되었는지에 설명은 빠져 있다. Gartner Lee Ltd.(2007) 연구도 커뮤니티웰빙을 지속가능한 생활 프레임워크(sustainable livelihoods framework)로 접근하고 따라서 그 요소는 인적자본, 사회자본, 물적 자본, 경제적 자본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제시하는 반면 각각의 자본에 대한 47개 지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연구들은 커뮤니티웰빙 지표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커뮤니티웰빙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커뮤니티웰빙 지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찾기 어려웠다.

Cuthill(2002)은 호주의 빈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제시하고 실제로 적용한다. 여기서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에 대한 인식으로

www.kci.go.kr

정의하고 이를 커뮤니티의 그림(portrait)이라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에서 개인의 삶, 커뮤니티와 정부의 관계,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생활을 살펴본다. 자료는 인구조사 자료, 심층 인터뷰 자료, 그리고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인구조사 자료 중 고령인구 비율, 19세 이하 인구 비율, 저소득층 비율, 1인가구 비율, 유자녀 가구 비율, 주택소유자 비율, 경제활동인구 비율, 실업률, 숙박 및 식음료업 종사자 비율, 그리고 자가용 소유 비율이 포함되었고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해서 퇴직자 비율, 교육수준, 지역 거주 기간, 이 지역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 그리고 지역의 전반적 분위기(정체, 천천히 발전하는, 활기차고 혁신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Cuthill(2002)의 연구는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구성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서 더욱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Christakopoulou et al.(2001)은 커뮤니티웰빙 설문지를 제시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에서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지표 구성은 커뮤니티를 주거공간, 사회적 공간, 경제활동 공간, 정치적 공간, 사적 공간, 그리고 도시의 일부로 보고 각 영역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파일럿 스터디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적 신뢰도(internal reliability), 요인 타당성(factorial validity),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validity)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제시 뿐만 아니라 그 지표의 신뢰도와 타당성 까지도 평가했기에 향후 커뮤니티웰빙 질문지를 구성할 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지표체계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도 다시 단순한 소개에 멈추는 연구과 적용, 그리고 평가까지 하는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Wiseman & Brasher(2008)는 호주의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CIV) 사례를 협동적인 지역사회 정책 수립의 수단으로 소개한다. 이 지표는 커뮤니티웰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5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1)건강하고, 안전하고, 통합적인 커뮤니티 2)역동적이고 강한 커뮤니티 3)지속가능한 자연 및 건축 환경 4)문화적으로 풍부하고 활기찬 커뮤니티 5)민주적이고 참여가 활발한 커뮤니티. CIV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표 평가틀을 만들고 이후 다수의 지방정부 관계자, 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www.kci.go.kr

의 회의를 통해 최종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CIV도 Cuthill(2002)의 지표와 유사하게 통계청 자료와 서베이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Wiseman & Brasher(2008)는 CIV의 소개에 그치고 지표의 적용이나 분석적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Cox et al.(2010)도 CIV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CIV의 개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서 향후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 개발과정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City of Calgary(2010)는 Calgary시의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정부 보고서이다. 커뮤니티웰빙을 경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신체적 웰빙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경제적 웰빙 지표는 빈곤률, 실업률, 주거 및 주택환경, 사회적 웰빙 지표는 가족 관계, 사회적 통합, 교육, 그리고 신체적 웰빙 지표는 개인 건강, 개인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Calgary시의 커뮤니티웰빙 수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수립 및 도시계획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Cummins et al.(2003)은 호주의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를 소개한다. 이 지표는 개인 영역과 국가 영역으로 구분되고 개인 영역은 건강, 사회적 관계, 안전, 삶의 질, 목표 달성 정도, 공동체 소속감, 미래 안정성이 포함되고 국가 영역은 호주의 사회 환경, 경제 환경, 자연 환경, 사업 환경, 국가 안보, 그리고 정부 지표가 포함된다. 지표의 개발 과정, 그리고 자료수집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나아가 지표를 바탕으로 웰빙에 대한 이론 중 하나인 항상성 이론(homeostatic theory)[3]을 검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커뮤니티웰빙 및 유관 개념의 측정이 개념의 정의 및 접근법을 기반으로 영역을 구성하고, 각 영역의 지표를 선택하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지표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만족 상태 혹은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고, 생활을 구성하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조건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평가, 인식 또

3) Homeostatic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혈압, 체온과 같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adaptation-level theory, set-point theory로도 불리며 더 자세한 논의는 Brickman & Campbell, 1971; Brickman, Coates & Janoff-Bulman, 1978; Easterlin, 1974; Cummins & Nistico, 2002 참조.

www.kci.go.kr

는 만족도라는 주관적 상태까지 포함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이상의 7개의 선행연구가 사용한 평가지표를 목록으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이다. 다양한 지표 중 고용률 및 실업률, 빈곤률, 주택 소유, 안전 및 치안, 대인관계, 지역사회 연결은 5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와 사회적 요인이 커뮤니티 웰빙에서 중요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커뮤니티웰빙 평가지표[4)]

저자 / 요인	A	B	C	D	E	F	G
교육수준	0	0	0			0	
평생교육		0			0		
기대여명		0			0		
인구구조	0	0	0				
고용률, 실업률		0	0	0	0	0	
소득	0	0		0	0		
고용질	0			0			
기준생활(빈곤)		0	0	0	0	0	
경제상황				0	0		0
광장접근도					0		
생태다양성	0				0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					0		
주택소유	0	0	0		0	0	
쓰레기처리 서비스					0		
안전 및 치안	0			0	0	0	0
보건서비스	0	0			0	0	
교통접근성	0	0		0	0		
인터넷서비스		0					
건강 상태		0			0	0	0
자살률		0					
대인관계	0			0	0	0	0
삶의 질					0		0

4) (A)White(2008); (B)Gartner Lee Ltd.(2007); (C)Cuthill(2002); D)Christakopoulou et al.(2001); (E) Wiseman & Brasher(2008); Cox et al.(2010); (F)City of Calgary(2010); (G)Cummins et al.(2003)

www.kci.go.kr

한 부모		0					
공공서비스	0				0		
상가접근성							
예술문화활동참여	0				0		
문화 다양성					0		
지역참여	0			0	0		0
정치참여(투표참여율 등)		0		0	0		
종교활동							0
자원봉사		0					
부의 분배					0		
문해률		0					
지역사회연결	0			0	0	0	0
일-생활균형					0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표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떤 개념을 조작화하는 것이기에 그 개념에 대한 정의와 접근법을 포함한 이론적 논의와 동시에 측정(measure) 또는 계량화(quantify)라는 실증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위한 연역적 방법과 실증적 논의를 위한 귀납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앞 장의 커뮤니티웰빙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웰빙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정의 및 접근법에 따라 구성요소를 찾고 지표를 추출하였다. 실증적 논의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커뮤니티웰빙 지표들을 탐색하고, 실제 지방정부 수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지표를 다양한 국가통계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추출된 지표와 귀납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표를 두고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하여 최종 지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지표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

www.kci.go.kr

베이스를 구축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이 지표들을 평가하는 틀(framework)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UN의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제시한 틀을 사용하였다. 1992년 UN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의 생성과 지표요인을 융통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CS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CSD 지표는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데 이들이 국제, 국가, 지방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관련성과 이용가능성이라는 두 축으로 매트릭스(matrix)를 그려서 적절한 지표를 골라내는 것이다. 이는 상황과 여건이 다른 각 국가에서 CSD지표를 적합하게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커뮤니티웰빙이라는 개념도 커뮤니티 각각의 특징 및 맥락을 강조하고 그 측정에 있어서도 각 커뮤니티의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CSD평가틀은 현존하는 CSD지표들을 각 국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틀인데 본 연구는 현존하는 커뮤니티웰빙 지표들을 한국에 무조건 적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웰빙 지표 세트를 만들고자 하기에 이 분석틀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정한 지표 평가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먼저 가로축은 커뮤니티웰빙의 이론적 개념과 한국적 상황을 실증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표의 관련성 내지는 연관성을 나타낸다. 관련성은 높은 관련성, 간접 관련성, 제한적 관련성, 낮은 관련성의 4단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높은 관련성과 낮은 관련성은 말 그대로 한국의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거나 낮은 또는 무(無) 관련성을 가지는 지표들이다. 간접 관련성이란 그 지표가 커뮤니티웰빙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커뮤니티웰빙의 연관지표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가령 자원봉사참여율, 문화여가 참여율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커뮤니티웰빙과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 지역의 사회자본이나 정신건강을 통해 커뮤니티웰빙과 연관 된다. 제한적 관련성이란 특정 지역에서만 매우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표들을 말하며 예컨대 제주도의 외국관광객 수 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웰빙 지표틀 개발을 목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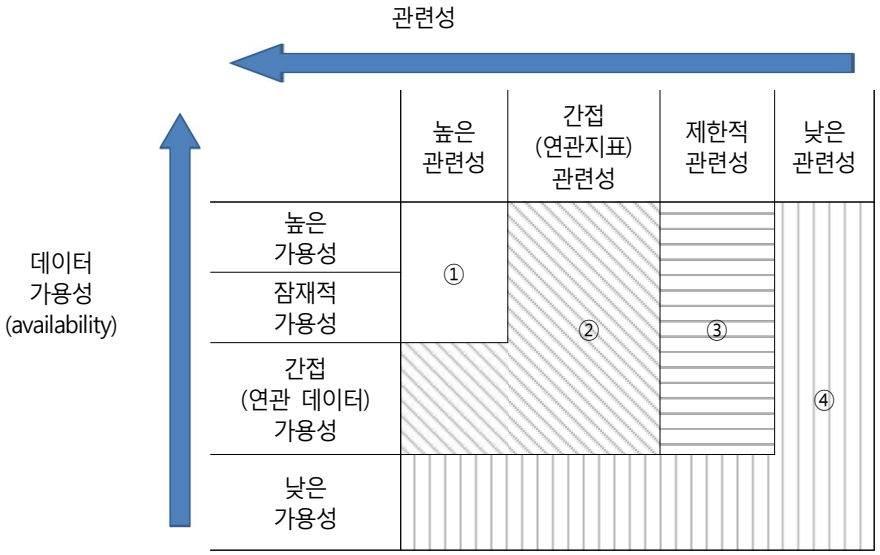
표로 하기에 특정 지역에서만 관련성이 높은 지표들은 제한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세로축은 데이터의 가용성을 나타내며 이는 실제 지표체계를 형성할 때 어떤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데이터를 새로 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높은 가용성은 이미 현존하는 데이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잠재적 가용성은 비교적 적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간접 가용성은 필요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연관된 데이터가 존재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어느 지역 주민들이 한 해에 질병에 걸리는 횟수를 알고 싶은데 이를 병원 방문 횟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낮은 가용성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구하기 매우 어려운 데이터를 말한다.

관련성과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지표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①)은 높은 관련성과 높은 가용성 또는 잠재적 가용성을 가지는 지표들로서 이들은 반드시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 매우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지표들이다. 두 번째 그룹(②)은 높은 관련성 또는 간접 관련성과 높은 가용성, 잠재적 가용성, 또는 간접 가용성을 가지는 지표들이다. 이들은 간접 관련성을 가지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누적된 효과를 통해 커뮤니티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간접 가용성을 가지는 데이터도 연관 데이터를 통해 추출할 수 있기에 이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보완작업(modification)이 요구되고 활용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그룹(③)은 제한적 관련성을 가지지만 데이터 가용성이 높거나, 잠재적으로 존재하거나, 약한 지표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때 의미를 갖기에 각 지역에서만 이러한 지표들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을 확인(identify)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④)은 낮은 관련성 또는 낮은 가용성을 가지는 모든 지표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관련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기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용성 측면에서도 너무 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요 지표들은 ①과 ②에 해당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한국형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로 제시하겠다.

www.kci.go.kr

〈그림 1〉 커뮤니티웰빙 지표 평가틀[5)]



최종적으로 선별된 지표들은 위의 평가틀에 따라 분류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전문가 집단은 지방정부 서비스, 삶의 질, 지방행정 분야의 교수, 연구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지표들의 가용성과 관련성을 4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는 설문지 형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Ⅳ. 외국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커뮤니티웰빙 지표 사례로서 OECD, UN, World Bank(WB), EU, WHO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유관지표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지표를 분석한다. 물론 이외에 학술적 성향을 띤 지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White, 2008; Wiseman & Brascher, 2008; Cox et al., 2010;

5) 본 평가틀은 United Nations(2007)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www.kci.go.kr

Cuthill, 2002; Institute of Wellbeing, 2009; Cummnis et al., 2003; Marks & Steuer, 2008; Salvaris & Wiseman, 2004; Tilouine, Cummins, & Davern, 2006; Wiseman, Heine, Langworthy et al., 2006; The City of Calgary, 2010; Christakopoulou et al., 2001; AECOM Canada Ltd., 2009; Lawless et al., 2010; Filipovic, 2008; Higgins, 2005). 그러나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연구범위를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표사례로 제한하겠다.

1. 국제기구의 평가지표

국제기구는 1970년대부터 삶의 질에 관해 연구하고 사회 지표, 행복감, 웰빙, 건강도시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UN은 지역사회를 생태계의 일부이자 유기체로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World Bank 역시 지속가능한 인간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에 이르기까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1) OECD: Your Better Life Index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는 웰빙 사회(well-being of societies)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시민이 참여하고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표의 영역은 크게 물질적 생활조건(주거, 소득, 일자리)과 삶의 질(커뮤니티, 교육, 환경, 거버넌스,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여가의 조화)로 나뉘며 이는 OECD가 기존에 축적해 온 연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6]. 분류된 소주제는 1개 내지는 3개의 세분화된 지표로 구성되어 동일한 가중치를 갖고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가중치가 동일하게 주어진 이유는 국가 마다 그리고 사용자 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OECD 34개 국가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6)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www.kci.go.kr

각 지표에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Your Better Life Index'는 가중치를 동등하게 주고 따라서 국가들의 순위를 매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떤 통합 웰빙 순위를 제공하지 않을 뿐이지 각 세부지표별 순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가중치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점은 커뮤니티웰빙이 커뮤니티 구성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들의 제언과 일치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부지표의 적절성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한국은 커뮤니티 주제에서 34개 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정(情) 문화, 반상회, 시민활동 등을 고려하면 다소 의문이 생기는 결과이다. 이 순위는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청할 친족, 친구, 또는 이웃이 있습니까?"라는 단일 항목에 따라 정해지는데 체면을 중요시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문화권에서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족, 친구, 또는 이웃을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까?" 34개 국가 모두에 대한 자료가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기에 지표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 지표가 타당성이 낮을 경우 제II종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2) U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SDI)

지속가능한 발전지표(SDI)의 초안은 UN의 경제·사회 담당 부처의 DSD(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통계부서의 공동회의를 거쳐 134개의 지표로 개발되었다. 1996-1999년까지 22개 국가에서 지표를 시범 운영하고,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표 이용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이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CSD 측정지표의 양이 너무 많다는 시범국가들의 건의에 의해 지표는 58개로 줄어들었고, 정책 중심적 영역과 이것의 하위 영역들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CSD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 포괄적이고 차별적으로 측정될 수 있게 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는 정부 관계자, 기술전문가, 시민사회대표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개발된다.

www.kci.go.kr

지표 개발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무엇을 측정할 것이며, 측정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떠한 종류의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에 집중하고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지표는 주제별로 빈곤(소득빈곤, 소득불평등, 위생시설, 식수, 에너지접근성, 생활조건), 거버넌스(부패, 범죄), 건강(사망, 건강서비스, 영양상태, 건강상태와 위험), 교육(교육수준, 문해률), 인구통계(인구, 관광), 자연재해(자연재해 취약성, 재난준비와 대처), 대기(기후변화, 오존층파괴, 공기 질), 토지(토지이용 및 상태, 농업, 사막화, 산림)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산술식을 제시하고 있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UN: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HDI)는 1990년 이후 UNDP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표로서 Amartya Sen의 이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Sen은 GDP 대신에 '삶의 질'을 발전의 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 사회의 발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지였다.

인간개발지수는 인간 개발의 기초적인 영역인 건강(장수 및 보건 수준), 지식(교육수준), 소득(생활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별 평균 성취를 1년 주기로 측정하는 복합지수이다. 따라서 인간개발지수는 소득수준, 경제성장률과 같은 국가 발전을 측정하는 전통적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방법으로써 개발되었다. 구성요소는 건강, 교육, 삶의 수준이라는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 영역에서는 기대수명, 교육 영역에서는 평균교육연수, 기대교육연수를, 마지막으로 삶의 수준 영역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세부지표로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다.

HDI는 지표 개수가 적고 단일지표를 제시하기에 국가 간 비교를 빠르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표 개수가 너무 적어서 실제 국가의 개발수준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지표체계와 비교할 때 2012년 187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의도 있다.

www.kci.go.kr

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지원과 세계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목표를 두고 빈곤퇴치와 경제를 통한 각국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경제발달과 산업성장과 관련하여 농업과 농촌지역의 발달 정도, 교육과 환경, 재정 분야 건강과 사회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빈곤, 에너지, 공공영역, 도시발달 등과 관련된 주제별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지원과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경제정책 및 외부채무와 관련된 지표가 198개로 가장 많은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표는 농업과 농촌의 발달(32), 효과적 지원(41), 기후변화(77), 경제정책 및 외국의 채무(198), 교육(44), 에너지 및 광업(11), 환경(96), 재정 영역(65), 성(134), 건강(89), 기반시설(65), 노동 및 사회적 보호(76), 새천년 개발 목표(1), 빈곤(18), 사적 영역(146), 공공 영역(76), 과학 및 기술(15), 사회발달(29), 도시발달(21)이다[7].

다수의 지표로 구성되어 국가의 웰빙 상태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표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세계은행의 주 관심사인 경제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기에 과연 이런 비중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5) EU: Eurostat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U는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두고 SDI(Eurostat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지표를 개발하였다. SDI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삶의 질과 현재와 미래세대의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은 2001년 Gothenburg 유럽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2002 세계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런 전략에 의해 EU는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EU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10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7)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all (검색일: 2012. 4. 24).

www.kci.go.kr

지며, 사회-경제발달, 지속적인 소비와 생산, 사회통합, 인구변화, 공중위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한 운송체계, 천연자원, 국제파트너십, 통치와 같은 주제로 분류된다.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EU의 특성상 국제 파트너십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지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커뮤니티웰빙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인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개발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6) WHO: Healthy Cities Indicator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건강을 고려하고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중 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건강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건강 도시 프로젝트는 1986년 캐나다,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특히 현재 도시의 건강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미래 정책 수립에 있어서 건강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가(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등)에서도 도입되었다.[8)]

건강의 의미는 보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삶의 모든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시의 최상의 잠재성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도시라고 정의한다.

이런 건강 도시 프로젝트들의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건강 도시 지표이다. 1999년에 첫 지표가 공개되었는데 이는 건강, 보건 서비스, 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영역의 53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표 개수가 너무 많고 특히 데이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들어났고 이 후 지표 체계는 2차 수정을 거쳐 32개 지표로 줄어들었다(Webster & Sanderson 2012). 수정된 지표 체계는 더 적은 지표 개수로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8) http://www.who.int/healthy_settings/types/cities/en/

www.kci.go.kr

2. 정부의 평가지표

1) 미국: Quality of Life Indicators

미국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삶의 질 지표(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 Inc's Quality of Life: JCCI))는 10명의 운영위원들과 9개의 핵심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주민과 이해집단의 참여와 잭슨빌 상공회의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JCCI, 2010). JCCI's Quality of Life는 1985년부터 매년 지역사회의 비전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여 지역사회 선출지도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JCCI가 제공한 다양한 정보와 각종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9개 영역 7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지표들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지표들은 전화조사 방법을 거쳐 측정되었다[9]. 측정된 지표들은 매년 잭슨빌의 삶의 질 보고서 평가 척도로 사용되었다.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2010년 기준으로 9개 영역의 108개 지표를 사용하며, 장단점과 새로 부상한 문제점이나 요구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여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내는 데 쓰인다. 본 지표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공적 사례로 꼽히며 특히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주목을 받았다.

9) 지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택되었다. ① 지표의 의미성과 유용성 여부, ② 지역사회 비전이나 목적을 공유의 중요성, ③ 지표에 대한 타당성과 정확도 ④ 지역사회 공공정책과 시행과의 관련성, ⑤ 삶의 질 변화를 신속하게 나타낼 수 있는 대응성, ⑥ 향후 미래 동향을 능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대성, ⑦ 지역사회 시민들의 삶과 유관한 이해가능성, ⑧ 데이터의 가용성 및 적시성, ⑨ 데이터 수집, 컴파일, 매년 같은 방식의 산출에 따른 안정성 및 신뢰성, ⑩ 지역사회 삶의 질에 대한 실제적인 조건을 측정하는 산출물 지향, ⑪ 지역사회 삶의 질의 긍정적 및 개선적 측면을 측정하는 자산 지향, ⑫ 지역사회 이해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리적 범위, ⑬ 현장 수치사용에 따른 명확성, ⑭ 삶의 질의 주요한 영역을 측정하는 대표성과 같은 기준으로 지표를 선택하였다.

www.kci.go.kr

2) 캐나다: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의 사회지표 작업은 196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UN의 1992년 리우선언 이후 공공기관으로 부터 웰빙 측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1999년 엣킨슨 자선 재단(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ACF)은 캐나다의 경제, 건강, 사회, 환경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캐나다 웰빙지표(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를 개발하였다. ACF는 캐나다 통계청을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지표 전문가들이 웰빙 측정을 위한 합의로 지표를 개발하고 이 과정에 40개 토론그룹 346명이 참여하였다.

CIW는 다음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통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하향식(Top-Down)으로 개념적 체계를 먼저 구축한 후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 두 번째로 상향식(Bottom-Up)으로 웰빙의 개념 측정과 연관된 다양한 데이터를 먼저 조사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체계화와 관련 데이터 조사라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접근하는 양면적(Bi-Directional)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웰빙 측정에 있어 8개의 영역을 선정하였다 (Michalos, et al., 2011).

3) 호주: Community Indicator of Victoria

빅토리아 커뮤니티 지표(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CIV)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문제점이나 목표를 발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되었다. 지표는 이런 탐색과정의 시작점(starting point)이 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데이터 조사, 분석 및 빅토리아의 동향 자료를 위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 제공, 둘째,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에 의한 커뮤니티웰빙 지표 개발과 사용 지원, 셋째, 국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계획 및 정책 결정 개선을 근거로 한 커뮤니티웰빙 지표 사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CIV의 데이터는 호주통계청, 빅토리아주의 기존 데이터와 CIV 조사를 사용하였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구할 수 없는 데이터는 CIV 조사(2007)를 통해 빅토리아주 79개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로 확보하였다. CIV는 지역사

www.kci.go.kr

회의 폭넓은 영역을 다루는 약 80개의 커뮤니티웰빙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각 지표는 1)건강하고, 안전하고, 통합적인 커뮤니티 2)역동적이고 강한 커뮤니티 3)지속가능한 자연 및 건축 환경 4)문화적으로 풍부하고 활기찬 커뮤니티 5)민주적이고 참여가 활발한 커뮤니티라는 총 5개 주요 영역에 의하여 구분된다.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프레임워크에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지표의 수는 매우 많지만, 지표의 프레임워크 기준[10]에 따라 주요 영역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4) 영국: The Local Wellbeing Indicator

지방웰빙프로젝트(The Local Wellbeing Project)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 실천전략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서비스 제공 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지방웰빙프로젝트는 경제적 성과중심 사회에서 웰빙이 홀대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감정적 활력과 웰빙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공공정책 설계와 전달, 공동의 행복과 웰빙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웰빙 요인은 가족, 이웃, 학교나 직장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지방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전제 하에 개발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수준의 계획과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역사회의 웰빙과 활기 측정(WARM)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국정부는 지역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제지표부터 건강과 교육에 대한 측정까지 다양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느낌은 무시하고 있어 통계가 아닌 실제 조사를 통한 삶의 질과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10) ①지역사회와의 관련성 및 가치성, ②이론적 기초와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승인, ③지속 가능성 및 지역 사회의 비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 ④미래 또는 문제점의 조기 징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⑤지방 정부 지역 수준으로 측정, ⑥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결과의 경향성 제시 여부, ⑦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 ⑧인구 집단에 의해 분류가능, ⑨관련 관할 구역에 대한 기준제시(benchmarked), ⑩측정방법론의 타당성, ⑪명확성과 지역주민에의 공감성, ⑫모든 빅토리아 지방 정부 분야에 적용성, ⑬피드백에 의해 지원, ⑭기타 주요 정부 지표와 일치이다.

www.kci.go.kr

WARM을 개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 지역주민 간의 신뢰, 지역 서비스의 질과 같은 강점과 고립, 높은 범죄율, 낮은 저축율과 실업율과 같은 취약점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웰빙 측정은 첫째, 개인 차원에서 수입・부, 건강, 교육, 삶의 만족을 둘째, 지원 차원은 안정됨, 가족, 대인관계, 1대1 서비스를 셋째, 시스템과 구조차원에서 지역활기, 경제, 낮은 범죄,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로 구분하였다.

5) 일본: 신국민생활지표

신국민생활지표는 일본 정부에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의 주관으로 1992년부터 조사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풍요로움의 지표'로 지칭되며, 이때 '풍요로움'은 경제적 만족뿐만 아니라 심리적 풍요로움, 사회의 안전성, 다양한 가치관의 수용, 국가에 대한 자긍심, 좋은 환경 보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장영식, 2007).

신국민생활지표 체계는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 보건의료, 여가, 교육, 관계의 8개 활동 영역과 안전·안심, 공정성, 자유, 쾌적의 4개의 생활평가를 중심으로 세부 지표들을 배치하였다. 신국민생활지표는 이들 세부 지표들 가운데 사회의 각 영역을 평가하거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추출한 후, 표준화 과정을 거쳐 표준화지수를 산정한다. 이는 단순한 평가요인뿐만 아니라, 요인을 가치와 결합하여 공정성, 안정성, 자유, 쾌적성의 가치가 각 지표별로 다른 측정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분석 및 시사점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커뮤니티웰빙 측정은 일부 국제적 기구에 의한 지표와 협력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적과 적용 수준에 따라 격차도 보이고 있지만, 지표의 개발은 다양한 지표 간의 비교를 위하여 학문적으로는 단일지표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역에 있어서는 경제적 영역에 속하는 재정, 소비/생산, 고

www.kci.go.kr

용에 관한 지표, 그리고 인적 자본의 한 지표인 교육수준, 건강 영역의 기대수명, 질병 사망률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공동체생활, 안전, 환경과 같은 영역의 지표는 덜 사용되고 있다. OECD, UN, EU, WB, WHO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들을 비교분석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제기구와 국가의 지표요인

영역	범주	UN-SDI	UN-HDI	OECD	EU	WB	WHO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일본
재정	소득	0	0		0	0	0	0	0	0	0	0
	자산			0				0	0	0		
소비/생산	소비지출	0			0				0	0		0
주택	소유/임대료							0	0	0	0	0
고용	고용률	0		0			0	0	0	0	0	
	실업률			0	0			0	0			0
교육	학력	0	0	0		0	0	0	0	0		0
	학업성취도	0		0				0	0	0		
	공교육비									0		0
	학생수	0	0	0				0		0	0	0
	평생교육	0							0			0
빈곤	빈곤	0				0	0					
평등	여성/장애인취업률	0		0						0		0
수명	기대수명	0		0	0		0	0	0			
	영아사망률	0			0		0			0	0	0
질병	질환사망률	0					0	0	0	0	0	0
	정신병 환자						0	0	0			
건강전반	자기보고							0			0	
거버넌스	선출직여성/다인종비율					0		0	0	0		
	발언기회/영향력			0				0	0	0	0	
	지역서비스 접근/대우				0			0	0	0	0	

www.kci.go.kr

정치참여	선거참여							0	0	0		
범죄	범죄자율	0		0				0	0	0	0	
공동체 생활	봉사비율							0		0	0	0
	이웃접촉			0	0			0	0		0	
안전	동네안전							0	0	0	0	
	자동차사고								0	0	0	0
	화재									0		0
다양성	인종차별경험								0	0	0	
문화여가	예술지원액							0	0	0		
	도서관								0	0		0
	공원/극장							0	0	0	0	0
	스포츠 시간						0	0	0	0	0	0
	일-생활균형								0		0	
대기환경	가스배출	0					0	0	0	0	0	0
수질환경	물 소비량							0	0	0		
해양환경	해양영양지수	0						0				
토양환경												
생활환경	매립장처리물	0						0	0	0		0
	통학시간								0	0		0
자연재해		0										
생태계	잡초/해충	0							0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현재 생활만족도			0					0		0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커뮤니티웰빙 유관 지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를 측정하려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보인다. 웰빙에 관한 연구는 좋은 삶과 좋은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삶의 질, 행복, 개인의 웰빙, 커뮤니티웰빙과 같은 주제들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고 국제기구나 국가 통계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혹은 행복감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행복감이나 웰빙은 경제적,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의 요인들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제적 성장

www.kci.go.kr

수치는 사회적 웰빙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사회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 경제적 측면 이외의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앞으로의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요구가 지표 개발의 중심 배경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사개념의 지표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측정지표를 범주화함으로써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영역 구성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상에서 살펴본 12개의 국제지표들은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이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일의 모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국제기구와 개별국가들에 의한 지표 개발과정은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수집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 지표를 개발하기 보다는 융통성을 부여하여 각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변형된 데이터 출처를 인정하고 있었다.

셋째, 국제기구와 국가수준의 커뮤니티웰빙 및 유관 지표들은 목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지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 2>에 나타난 바, 국제기구는 소득, 학력, 수명의 지표가 공통적인 우선순위를 보였으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국제기구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객관적 수치로 주어지는 데이터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개별국가수준의 지표 가운데 소득, 주택, 질병, 녹지(공원), 여가, 대기오염은 연구대상 5개 국가의 지표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국가수준으로서의 평가 수준이 국제수준에 비해 공통적인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수준의 지표에서 공통적인 지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리라는 시사점을 준다.

넷째, 지표의 측정단위와 측정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지역성의 반영이다. 측정을 위한 지표의 영역 가운데 동일 지표가 다른 단위로 측정되는 것이다. 해양환경 측정의 경우 어느 지역은 거북이 생태환경의 변화를 측정단위로 보기도 하고 다른 지역은 물고기의 생태환경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개발은 각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고유성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한 지표의 개발이 가능함을 보

www.kci.go.kr

여준다.

다섯째, 일부 지표는 국제적 혹은 국가적 단위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수준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지표들은 개발하는 과정에 지표의 적용수준을 가정하고 있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그 출처도 미리 확보하고 진행되었다. <표 2>를 보면 국제기구의 지표에는 안전과 다양성, 문화여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없으며, 개별국가단위로 개발된 지표는 빈곤이나 토양환경, 자연재해의 영역에 대한 지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은 국제차원의 관심영역과 개별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 시 지표를 차용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4. 한국형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를 위한 시론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만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Kusel & Fortmann, 1991). 국제지표의 비교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웰빙의 영역은 교육・문화, 주민복지 및 사회안전・환경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의 경제적 영역에 대한 측정을 넘어 이런 영역들에 대한 측정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다음의 몇 가지 주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웰빙 측정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커뮤니티웰빙의 개념, 구성요소 등과 더불어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객관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져야 하겠다.

둘째, 커뮤니티 단위의 객관적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그 중심 영역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영역으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단위의 서비스 일부분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

www.kci.go.kr

심 영역은 지방정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영역으로 한정시켜야 하겠다.

셋째, 한국적 상황에 맞는 커뮤니티웰빙 측정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측정지표의 영향 요인 규명이 필요하다. 국제 지표는 각국, 또는 해당 국제기구의 사용목적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국제기구나 다른 상황에 있는 국가 간의 일반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II장의 연구방법론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을 어떤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상태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현존 지표 사례를 분석하여 커뮤니티웰빙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지표는 다시 이용 가능한 지표 목록과 크로스체크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추출한 한국형 커뮤니티웰빙 지표 50개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지표들은 객관적 지수와 주관적 평가가 혼합되어 있고 커뮤니티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되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들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선택된 지수는 보건, 인구, 환경, 기반 시설, 문화, 교육, 복지, 행정서비스, 공공안전, 공동체, 노동, 재정, 경제로 총 13개이다.

〈표 3〉 한국형 커뮤니티웰빙 지표

지수	지표	지수	지표
보건	기대여명	행정서비스	공무원 청렴도
	의료기관 수		1인당 공무원 수
	건강 만족도		서비스 전달과정 만족도
	의료 서비스 만족도	공공안전	자연재해 피해액
인구	전출 인구		자연자해 인식
	거주지에 대한 애착도(또는 이주 의향)		범죄건 수
환경	쓰레기 폐기물		경찰인력 수
	쓰레기 처리 서비스 만족도		치안에 대한 만족도
	대기오염도		
	공원 및 녹지율		
	공원 및 녹지 만족도		

www.kci.go.kr

기반 시설	대중교통 만족도	공동체	동호회 참여
	인터넷 보급률		사회참여
	도로보급률		자원봉사자 수
문화	문화예술기관시설 수	노동	직업훈련기관 수
	문화 활동 배정예산		실업률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고용률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산재보험 가입률
교육	공공도서관 수		일자리 만족도
	공공도서관 만족도	재정	재정자립도
	평생교육 시설 수		지방세 징수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가 예산대비 지방예산 비율
복지	노인, 장애인 시설 수	경제	국내 총생산
	노인, 장애인 서비스 만족도		경제 참가율
	건강, 보육지원 시설 수		경기 동향
	건강, 보육지원 서비스 만족도		
	사회복지 예산규모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V. 결론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을 지방정부의 가치와 정책 결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개념의 정의와 접근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 국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커뮤니티웰빙의 측정 역시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지표 목록을 뽑고 다시 관련성과 데이터 가용성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최종지표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www.kci.go.kr

첫째, 커뮤니티웰빙 지표 연구는 웰빙의 연구와 사회지표 혹은 사회발전 지표 등의 연구와 혼용되는 성향이 강하다. 그것은 개념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사회개발지표 혹은 사회지표로 사용되는 것과 지표의 중복 현상이 많다. 또한 웰빙 지표와도 중복되고 있다. 특히 Sen(1995)은 웰빙이 물질적인 측면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지표라고 지적한다. 이런 중복 체계는 한 지역사회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정리에 드는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에 향후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개발할 때 기존의 지표와 어떻게 구분하고 정리할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웰빙과 웰빙의 구분에 관한 한계이다. 선행연구들은 웰빙에 관한 연구와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연구들이 다른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으나 일부 연구는 웰빙을 심리적 웰빙, 신체적 웰빙, 개인의 웰빙, 커뮤니티의 웰빙 등 웰빙을 총체적 개념으로, 다른 개념들은 웰빙이라는 개념의 하위영역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을 독자적이고 고유한 개념으로, 즉 웰빙의 하위영역으로 보지 않고 웰빙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지표 개발을 위한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런 개념 구분의 모호성은 커뮤니티웰빙의 좋은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술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개념들 간의 구분과 관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향후 연구들 간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사회지표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 국제지표들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평가도 결국 개인들의 인식이나 주관적 보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건강이나 질병 지표의 경우, 본 연구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나, 실제 객관적 지표는 지역사회의 보건관련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보고(self-report)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지표들은 이미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분석한 바, 동일 지표가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지표 전체의 방향성은 유사하나 몇 개의 지표만이 달리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데

www.kci.go.kr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나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50개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커뮤니티웰빙 지표로 제시된 항목 중 지역공동체 활동 등 커뮤니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빠져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분명히 커뮤니티웰빙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표들은 현재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이터 가용성 척도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최종지표에 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강조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50개 지표가 커뮤니티 웰빙 지표의 완성본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현재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는지를 보고 앞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앞으로는 지역공동체 생활, 지역생태계 구조, 지역경제 구조 등 커뮤니티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수집이 시급하다.

둘째, 커뮤니티웰빙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본 지표체계는 전문가의 조언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수별 가중치, 그리고 단일지표 구성 시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의 목적이 커뮤니티웰빙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현재 사용가능한 지표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서 커뮤니티웰빙 연구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들은 여기서 제시된 지표들을 다양한 주체, 특히 주민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지표의 가중치는 각 지역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사용가능한 지표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형 커뮤니티웰빙 지표 개발의 시작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장영식 외. (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AECOM Canada Ltd. (2009). Applying community well-being: lessons and

www.kci.go.kr

experience of Canadian practitioners. NWMO SR-2009-02.

Brickman, P. & Campbell, D. (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M.H. Appley (ed.) *Adaptation level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Christakopoulou, S., Dawson, J., & Gari, A.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321-351.

Cox, D., Frere, M., West, S. & Wiseman, J. (2010).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5(1): 71-88.*

Cummins, R., Eckersley, R. , Pallant, J., Vugt, J., & Misajon, R. (2003). Developing a national index of subjective wellbeing: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2): 159-190.

Cummins, R. & Nistico, H. 2002. Maintaining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cognitive bia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37-69.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 David & M.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Filipovic M.. (2008). Influences on the Sense of Neighborhood: Case of Slovenia. *Urban Affairs Review*, 43(5): 718-732.

Gartner Lee Ltd. (2007). *The Role and Application of Sustainable Livelihoods Framework For Measuring & Monitoring Community Well-Being*. NMWO SR-2007-12.

Higgins, D. (2005). *Indigenou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early learnings research report*, edited by Daryl Higgins, Melbourne: Telstra

www.kci.go.kr

Foundation.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Ilić, I., Milić, I., & Arandelović, M. (2010). Assessing quality of life: Current approaches. *Acta Medica Medianae*, *49(4): 52-60.*

Institute of wellbeing. (2009).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Australian Indigenous Health Bulletin.* 10(2).

JCCI. (2010). *Quality of life progress report.* 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 Inc.

Kusel, J. & Fortmann, L. (1991). What is Community Well-being?. In Kusel, J. & Fortmann, L. (eds.) *Well-being in Forest-dependent Communities Vol. I(*1- 45). Sacramento: California 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Forest and Rangeland Resources Assessment Program.

Lawless, P., Foden, M., Wilson, I., & Beatty, C. (2010). Understanding area-based regeneration: The new deal for communities programme in England. *Urban Studies*, 47(2): 257-275.

Marks, N & Steuer, N. (2008). *Local Wellbeing: Can we measure it?*. Report for the Local Wellbeing Project.

Michalos, A.C., Smale, B., Labonté, R., et al. (2011).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Technical Report 1.0. Waterloo, ON: Canadian Index of Wellbeing and University of Waterloo.

Putnam, R, Leonardi, R., & Nanetti, R.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th, T. & Harter, J. (2010). *Wellbeing-The Five Essential Elements*. New York: Gallup Press.

Salvaris, M, & Wiseman, J. (2004). *Mapping Community Wellbeing: Using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to Choose Goals and Measure Progress.* Carlton, Victoria: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Sen, A. (1995). *Inequality Reexamined.*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mits, J. & Hoekstra, R.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www.kci.go.kr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tatistics Netherlands.

The City of Calgary.(2010). Indices of Community Well-Being, 2006 for Calgary Neighbourhoods. Report prepared by the Social Policy and Planning Division of Community and Neighborhood Services, City of Calgary.

Tiliouine, H., Cummins, R., & Davern, M.. (2006). Measuring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Algeria.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1): 1-30.

United Nations. (200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Report by Economic &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Webster, P. & Sanderson, D. (2012). Healthy Cities Indicators: a suitable instrument to measure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1-10.

White, S.. (2008), *But what is Wellbe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social and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paper for regeneration and wellbeing: research into practice. University of Bradford. 3-7.

Wiseman, J., & Brasher, K.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29(3): 353-366.

Wiseman, J., Heine, W., Langworthy, A. et al. (2006). *Measuring Wellbeing, Engaging Communities*. VCIP Project Team.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all

http://www.communityindicators.net.au/files/civ/20060817_VCIP_Final_Report_0.pdf.

http://www.europa.eu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http://www.un.org/esa/sustdev/natlinfo/indicators/guidelines.pdf.

http://www.who.int/healthy_settings/types/cities/en/

www.kci.go.kr

Abstract

Developing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for Korea: Learning from International Cases

Ki, Young Hwa
Soongsil University

Kim, Yoon Ji
Soongsil University

Kim, Nam Sook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munity wellbeing indic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lect countries to provide guidelines for developing a community wellbeing index in Korea. In detail, the study examined the indices of the OECD, UN, UNESCO, EU, WHO and select cas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United Kingdom, and Japan. We found that while these indicators served a wide variety of purposes, they were not comprehensive and had critical limits to generalized application. As such, an important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critical limits to applying existing community wellbeing indices to Korea. This paper presents a set of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for Korea based on a matrix evaluation framework of relevance and data availability.

[Key Words: community wellbeing index, community wellbeing, local government, quality of life]

논문접수일: 2013년 3월 29일, 수정일: 2013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 2013년 5월 16일

제1저자: 기영화 (Ki, Young Hwa)
소속 및 직위: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전화번호: (02) 828-7286 , 이메일: key@ssu.ac.kr

제2저자: 김윤지 (Kim, Yoon Ji)
소속 및 직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행정대학원 57동 304호
이메일: yunjik@snu.ac.kr

제3저자 (교신저자): 김남숙 (Kim, Nam Sook)
소속 및 직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HRD 전공 전임교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전화번호: (02) 820-0295, 이메일: tbr211@ssu.ac.kr

www.kci.go.kr